

최근 몇 달동안의 세상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 돌진하시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삽으로 땅을 뒤집어 기경하듯 세상이 까불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현상들을 묵상하는 도중 뜻하지도 않게 러시아제국이 무너지면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숙청과 혼란과 전혀 다른 질서를 겪었던 혼돈의 시절에 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들의 심정이 와 닿는 순간 나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그려지며 이에 준비치 못한 수많은 이들의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꽤 긴 순간 Overlap 되며 마음 한구석을 스산하게 했다. 왜 이런 모습이 Overiap되며 보여 졌을까 한참 생각에 젖어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언젠가는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 시간이 당겨 지거나 늦춰지느냐에 따라 조금 빨라지거나 조금 늦춰질 뿐이다. 이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동안의 이 세상은 두 얼굴로 비유할 수 있다. 하나는 사실이란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속임의 거짓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진영이요 또 하나는 공산진영이다.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여지껏 공존해 왔다. 그런데 급작스럽게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하나의 얼굴로 흡수되는 듯 보여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향해 속도가 붙는 듯하다. 앞으로 있을 세계 단일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일들이 남아 있으므로 끝자락의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먼 이야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 영원의 세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주님의 재림과 들림에 대비하는 삶이다. 그래야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요동치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준비된 삶, 곧 새 하늘 과 새 땅을 향한 삶, 변절이나 배교나 낙오됨이 없이 오직 예수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고(재림)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순종의 삶, 정결한 삶,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하나님나라는 주님의 신부 수업과정이며 새 하늘 과 새 땅을 예비하는 훈련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Skip할 수는 전혀 없다. 여기에는 적당이라는 중간지대는 없다. 거룩(하나님나라)이 아니면 타락한 세상살이가 있을 뿐이다. 세상의 것들은 심판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죄와 세상을 도려내는 삶이다. 우리는 토기이다. 토기는 토기장이에 의해 쓰여 진다. 그런데 분수도 모르고 주인처럼, 왕처럼 멋대로 살았다. 이제는 토기장이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나라에 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하므로 매일의 삶을 주께 맡기고 매사를 묻고 상의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낙심치 말고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Saving Account에 돈이 쌓이듯이 주님과 대화와 응답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곧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인 것이다. 현존의 하나님나라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나 홀로의 삶은 세상살이로 영적 전쟁에 패인이 된다. 그러면 끝이다.

고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속에 있어야 한다. 주와 동행하는 삶! 이 길만이 주안에 내가, 내안에 주가 함께하는 삶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리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저 천성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개의 세상의 얼굴이 하나의 얼굴로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들림(부활과 휴거)을 받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그에 걸맞는 삶 안에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신앙이던, 삶이던 모두를 미련 없이 도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주의 재림에 준비된 삶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은 코로나19가 없는 한 해를 기대하며 시작하였으나 11월 중순부터 다시 급증한 감염자들로 인해 성탄절부터 다시 24시간 통행금지를 1월까지 연장하고 새해 들어서는 하루 4,5천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중남미 인구 비율로 감염률 1위, 파나마 인구 4백만). 이로 인해 이곳 야비사마을도 감염자가 급증하여 선교사의 앞집 2가정, 폴로목사등 동역자 2가정이 감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음성 판정으로 정상 활동하나 폴로목사는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짐) 이로 인해 2020년 성탄예배, 연말,신년 계획한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1월 한 달을 자가격리로 보냈습니다. 2주전에 파나마에 백신이 15,000개가 보급되어 경찰 및 병원 관계자가 일차적으로 맞고 이곳 야비사에도 6개(?)의 백신이 도착해 이곳 일반 시민에게 접종 되었습니다. 다행이 1월 25일부터 야비사가 포함된 다리엔주는 24시간 통제 금지가 해제되고 그 외의 타 도시는 2월에 조금씩 해제될 예정입니다.

작년 초부터 기도해 오던 콜롬비아국경 Yape마을에 지난10월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개척된 PinoGana마을 베다니교회에서 배로 다시 2시간을 올라가는 지역으로 흑인70%, 엠베라인디언30%로 약 700여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 번의 마을 집회와 마을 전도 등을 통해 현재는 3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게도 주님을 영접한 호세, 후안나가정이 예배장소를(앞으로 교회로 사용할 예정) 제공했고 이들 젊은 부부를 이곳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을 무당인 마리아자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했는데 전도기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열심히 선교사를 돕는 교회 자매가 되었습니다. 2월 중순에 부흥회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7개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교회 장소 및 리더들을 세우기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Yape마을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의 선교 열매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이곳 파나마에서 2번째로 개척한 Esperanza마을 생명수강 교회에서 3반4일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정글 깊숙이 5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엠베라인디언부족들인 이들은 부지런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 가난에서 벗어난 마을입니다. 건기철이라 강물 수위가 낮아 통나무배를 이용하다 보니 때때로 배에서 내려 밀면서 가는 데만 8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에는 부흥회, 낮에는 성경공부 그리고 침례식을 베풀고 마지막 주일에는 3쌍의 결혼식을 주관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부터 교회 장소가 모자라 교회 뒤쪽 벽 판자들을 떼어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월 15일은 파나마한인교회 추수감사절을 겸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인교회에 담임목사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현재 파나마에는 한인 목회자, 선교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나눔선교회를 통해 지난 12월에 제 4차 식량지원을 마친 교회를 개척중인 Yape마을에 전달하여 교회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이곳 파나마한인교회 성도님의 도움으로 성탄선물을 각 교회 어린이들에게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리엔주가 24시간 통행금지가 풀리면서 오랜만에 작년 10월에 교회를 개척한 Yape마을과 Pino Gana마을 베다니교회를 폴로목사와 함께 돌아보며 지도자들과 2021년 계획들을 의논하고 성도들과 위로의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쌀과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시기라 일을 나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만남이 선교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건축을 일부 시작할 수 있는 헌금(4천불)이 도착해 다음주부터 La Palmera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1차로 이번 헌금으로 할 수 있는 기둥과 지붕을 덮는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일단 지붕만 있으면 더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자재상들이 장사를 못해 자재들이 없어 먼 곳에서 간신히 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음주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축 헌금의 일부를 부지 구입대금(7,000불) 일부(천불)를 지불하고 나머지로 건축을 해야 하기에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 함께 건축할 예정입니다. 교회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 헌금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목사)들을 세워 교회를 인도하게 하였으나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수준이라 선교사가 기회가 되는 데로 훈련하고 교육을 하지만 한도가 있기에 목회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세미나등을 열었는데 효과가 좋아 올해 3월부터 2년간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신학교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은혜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강사가 되어 통역을 통한 강의가 이루어 집니다. 평소라면 생각도 못한 방법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곳 동역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곳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에도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함께 쓰임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1. Yape마을 교회 개척과 Jose, Juana가정이 교회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월 부흥회를 위하여.
2. La Palmera마을 교회 건축 재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교회 건축이 완공 되도록.
3. 3월에 시작되는 온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이곳 동역자들이 성숙한 리더가 되도록.
4. 학교와 농장 부지 구입이 되도록.
5. 선교사, 동역자가정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파나마 김재한 그레이스 김 선교사-



<Yape마을 저녁집회>



<에스페란사마을 생명수강교회 부흥회>



<파나마한인교회 추수감사절설교>



<건축준비중인 La Parmera마을 하나님의은혜교회 현재 예배장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자...” <이사야 43장 19절 >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임진섭, 양윤희, 임하엘 선교사가정 문안 인사드립니다. 미국은 날씨가 어떤지요? 태국은 3계절로 나뉘는데 현재 가장 시원하다고 하는 건기입니다. 그러나 방콕은 세계에서 차 막힘이 1.2위를 달리고 있고 사람도 많고 빌딩도 많아 건기에도 꾸준히 더운 날씨입니다.

-재적응 이야기-

저희가정은 2018년 11월에 태국 방콕에 처음와서 언어공부를 하던 중, 작년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 언어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과 학교, 식품매장만을 제외한 모든 백화점과 마트 등이 전면 폐쇄되어 2 달 정도 집에만 갇혀 지내다가 4월에 한국에 잠깐 다녀러 갔습니다.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태국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저희는 한국에서 8개월을 지내고 작년 12월 코로나로 새롭게 생긴 특별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자가 만료되고 워크포잇이 만료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최대 270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가정은 지금 방콕에서 다시 적응하며 새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렵지만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대각성과 함께 새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주일학교 사역-

저희는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몸은 바쁘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를 충성되어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태국으로 돌아와 1월 둘째 주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인교회를 통해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부부의 사명 “문화사역”-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것 중 하나는 “문화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연극영화학과를 전공했고, 저는 기독교극단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3월 28일 중력주일에 모노드라마 “늑슨 세 개의 못”을 공연할 것이고 5월 첫 주일에는 전세대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저희부부가 인형극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날 태신자들 초대해서 인형극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콕에서 10여 년간 인형극 사역을 하시는 선배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약 40년의 인형극 경력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과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인형극사역의 장이 넓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선교사님과의 함께 문화사역을 통해서 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언어 훈련-

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쉬었던 언어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월은 태국이 준 낙다운 상태여서 학원과 학교가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기에 저희도 온라인으로 언어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원에도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1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어 2월부터는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손 모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가족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매일의 가정예배로 믿음 안에 거하도록.
2. 건강을 위해
 - 임진섭선교사 목에 물혹이 있는데 조직검사를 하려면 성대를 잘라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 물혹을 제거해 주소서.
 - 양윤희선교사 유방종양(조직검사예정), 손목 건초염, 목디스크
3. 저희가족에게 언어에 기쁨부으시어 태국어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실히 공부하도록.
4. 한인교회에서 맡은 주일학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월28일 모노드라마, 5월 2일 인형극사역)
5. 하엘이가 현지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실한 어린이선교사로 자라도록.



-태국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갈급한 마음에 보따리도 싸지 못하고...

네पाल을 가야할것 같은 갈급한 마음에 보따리도 싸지 못하고 코로나 검사 후 2월 19일날 네पाल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돌아오니 학교는 다시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복된 곳이 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 때문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재발을 잘 하는 암이기에 2년동안은 조심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주시는 갈급한 마음은 막을수가 없었네요. 도착 후 많이 힘들다 느껴졌는데 적응이 되는지 잘 견디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암에서 자유하고 싶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중순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이들을 보내 주시도록, 그리고 헌신된 선생님들과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또 식수와 생활 용수도 필요하고 아직도 지방정부에서 잡고 있는 학교 등록 문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교육 받기가 아주 열악한 서북쪽 종라와 조상대대로 일용직으로 지독히도 가난한 미 전도 종족 타미족들입니다. 이 들이 말씀으로 교육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섬김과 기도가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पाल 이OO 선교사-



저이며시!! (예수만세!!)

네팔덱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26일부터 다시 네팔 입국 조치가 완화되어 한달에 한번씩 전세기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2월 19일에 네팔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021년 1월11일에 3번째 시술했던 바로 그자리에 다시 재발하여 4번째 맘모툼 시술로 유방에 양성 섬유선종 제거하고 조직검사하던 중에 소엽상피내암이라고 명칭은 암의 분류에 해당되지만 아직 암은 아닌 유방암 전단계로 그러나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3mm 두 개의 조직부분을 크게 더 도려내고 빈 곳을 복원하는 수술을 1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지금도 부산세계로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조직검사결과는 이번 수요일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수요일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 6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잘 받아 추적검사하면 된다고 하네요. 전신마취 수술이후 산소포화도가 낮아 좀 조치를 취하고 무통 주사를 3일간 또 진통제와 항생제 주사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서 아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고통없이 잘 치료되었나 봅니다. 1달 정도 더 휴식 시간이 갖고 3월 19일에 다시 네팔 복귀하려고 합니다.

한빛학교는 이번 2년째 신학기 시작하여 유치부부터 2학년까지 80여명이 등록해 공부하고 있고 저번주 중간고사 시험도 실시했다 합니다. 한빛배움터도 1월 28일부터 2021년도 한국어시험 준비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한 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 주시길 또 마음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학교와 한국어학원을 혼자 운영하며 애쓰고 있는 선제이 며칠전 현지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손교회 우뚝 목사의 뜨리자 사모도 얼마전 네팔에서 주먹만한 자궁근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핫피슈레에는 병원이 없고 치료차 이동이 어려워 헤떠우라 꺼르라교회에서 아직 회복 중에 있니다. 헤떠우라 꺼르라교회도 임대한 교회 건물이 노후되고 7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하기에 좁아서 자체 교회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데 먼저 40여평의 땅을 구입해 건물 지을 준비는 되었는데 2층 교회건물을 건축하기에는 재료비만 2천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자체 건물 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주어진 시간 잘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잘 쉬고 회복되고 준비되어서 네팔에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비자 갱신 문제도 순적하게 잘 되도록 필요한 재정과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 삼지 않고 제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담당 변호사 퍼원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며 감사감사 드립니다.

-네팔 박OO 선교사-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내에 있는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 카잔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또 한 파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도만 하면 크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타타르스탄의 소식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주전 영하 2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4도로 올라갔는데 교회 수도관이 터져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주일 날이었습니 다. 교회는 나무 집인데 거의 천장까지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 수도관리부에 연락했는데 밤 12시에 와서 물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찬 물을 빼고 목요일에 수리기사를 불러 수도관도 빨리 고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고칠 곳도 많은데 그동안 난방, 수도관, 전기, 가스, 정화조 시설 등 고장이 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몰라도 되었던 것들이었는데, 알고보니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1월 중순부터 4주동안 현지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경공부를 녹화해 주일 예배 후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바울의 선교여행, 카잔의 교회역사,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이렇게 자신들이 주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준비한 강의 영상을 교회에서 같이 보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후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6-7주간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 후 함께 밖으로 나가서 회식을 했습니다. 남성들의 날로 회식을 하기로 하였는데 여성들이 더 좋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임장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집주인께서 파시려고 2월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 3월에 중단하셔서 여름에 계획했던 건물 수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무명으로 보내주신 리모델링을 위한 현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여름에 잘 아는 분께서 부동산 사이트에 나온 한 땅 집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훨씬 저렴하다면서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 집을 찾아 가보려 했는데, 그 땅 집은 사람들을 낚기 위한 곳 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현지 교회들도 형편이 어려워 여러 교회가 한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건물 용도는 종교모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장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타타르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타타르의 무슬림 청년들 복음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코로나19 기간에도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령충만해지고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3. 한글학교 사역과 대학사역에도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어지고 저와 아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도록
4. 교회와 한글학교 사역을 위한 모임 장소를 위해서
5.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올바른 인격성숙, 세아의 왼쪽 다리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러시아, 타타르스탄 주선민 손소미아 선교사-

